

■ 오늘 제41회 장애인의 날 / 제주 장애인 등록 4만명 육박

# 20년새 3배 증가... 복지정책은 제자리

### 2000년 1만1763명서 2020년 3만6655명으로 늘어 “장애인 특성·장애 유형 고려한 맞춤형 정책 필요”

제주지역 등록장애인 수는 해마다 증가하고 있으나 장애별 맞춤형 복지정책은 한계를 보이고 있다.

보건복지부가 19일 발표한 2020년 등록장애인의 장애유형·장애정도·연령 등 주요 지표별 '2020년도 등록 장애인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등록장애인은 263만3000명(전체 인구대비 5.1%)으로 전년도 말 대비 1만4000명 증가했다. 심한 장애로 등록된 장애인은 98만5000명(37.4%), 심하지 않은 장애로 등록된 장애인은 164만8000명(62.6%)이다. 연령별로는 60대(60만2000명·22.9%), 70대(58만5000명·22.2%)에서 등록장애인 수가 가장 많으며,

전체 인구대비 장애인 등록 비율도 60대 이상(60대 8.9%, 70대 15.8%, 80대 이상 22%)에서 높게 나타났다. 성별로 보면 남성 등록장애인이 152만명(57.8%)으로 여성 111만명(42.2%)보다 높다.

제주지역 등록장애인은 3만6655명(남자 2만244명·여자 1만411명)으로 세종시 1만2000명(0.5%)에 이어 전국에서 두번째로 적었다.

도내 등록장애인은 지난 2000년 1만1763명에서 2005년 2만2244명, 2010년 3만1874명, 2015년 3만3510명, 2019년 3만6287명으로 20년새 세배 이상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장애유형별 복지정책은 사실상 제자

리 걸음을 걷고 있다.

제주지역 장애유형을 보면 지적장애 1만4395명으로 가장 많고 시각 4142명, 청각 6490명, 언어 403명, 지적 3393명, 뇌병변 3567명, 자폐성 617명, 정신 1295명, 신장 1488명, 심장 76명, 호흡기 249명, 간 192명 안면 25명, 장류·요루 200명, 뇌전증 123명이다.

이에따라 장애인의 특성과 장애 유형간의 형평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맞춤형 복지정책을 수립·시행해야 하지만 제주도의 장애인 복지지원 정책은 수혜 대상이 적고 지원도 편중되고 있다.

제주도는 올해 성인 및 청소년 발달장애인의 의미 있는 낮 시간을 보장하고 보호자의 돌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주간활동 및 방과후 활동 지원 예산을 지난해 180명에서 262명으로

확대했다.

또 로봇활용 장애인재활사업을 1개소에서 2개소로 확대했고 장애인들의 소통과 교류의 장 마련을 위한 장애인회관과 발달장애인종합복지관을 신속해 올 하반기부터 운영에 들어갈 예정이다.

중증장애인들이 자립할 수 있도록 도내 공공기관과 출자·출연기관 내 공간을 활용하는 창업형 일자리 카페 설치 확대에 한계를 보이고 있다.

도내 한 장애인복지시설 종사자는 “장애인 시설 종사자에 대한 혜택은 좀 나아진 것 같지만 장애인들에게 직접 돌아가는 수혜는 그리 나아진 것 같지 않다”며 “장애별 맞춤형 복지정책을 시행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제주도는 올해 장애인복지 실현을 위해 총 1732억원을 투입할 예정이다. 고대리기자

## 코로나19 신규확진 2명 추가

### 모두 타지역 확진자 접촉 18일 현재 총 675명 확진

제주지역에서 지난 18일 2명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난 18일 667명에 대해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벌인 결과 이중 2명(674·675번)이 확진 판정을 받았다고 19일 밝혔다.

이로써 제주지역 누적 확진자 수는 675명으로 집계됐다.

674번 확진자는 가족 여행을 하기 위해 지난 17일 오전 경상남도 의령군에서 제주로 왔다.

674번을 포함해 4명이 함께 여행

을 하던 중 17일 오후 4시30분쯤 동행하던 가족 A씨(경남 3355번)가 의령군보건소로부터 확진됐다는 통보를 받았다. A씨는 의령 소재 어린이집 근무자로 보육교사 코로나 선제 검사를 시행한 후 결과를 확인하지 않고 제주로 온 것으로 확인됐다.

A씨의 확진 직후 가족들이 코로나19 검사를 받은 결과 지난 18일 674번이 확진 판정을 받았으며 함께 입도한 나머지 가족 2명은 음성으로 확인됐다.

675번은 충청남도 논산시 68번 확진자의 접촉자로 확인돼 지난 7일부터 격리를 진행하다 격리 해제 전 검사에서 확진된 사례다.

강대리기자 dhkang@ihalla.com

## “공중화장실 몰래카메라를 찾아라”

### 자치경찰단, 도내 주요 관광지 상시 점검

중독암, 한라산국립공원 등 제주도 내 주요 관광지 30여 곳의 공중화장실 내 몰래카메라 점검이 진행된다.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은 행정시 관련 부서와 협업해 주요 관광지 공중 화장실을 대상으로 불법 촬영기기 및 안심비상벨 집중 점검에 나선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n번방 등 불법 촬영기기를 이용한 디지털 성범죄 사건이 증가함에 따라 여성이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는 화장실을 만들기 위해 추진된다.

도민과 관광객이 다수 운집하는 주요관광지 30여개소를 대상으로 점검이 이뤄지며, 초소형 몰래카메라

도 탐지가 가능하고 고급 적외선 센서가 장착된 전파·전자파 동시 탐지기를 투입해 화장실 내 설치 의심 장소에 대해 면밀히 살필 계획이다.

점검을 마친 곳에는 여성안심화장실 스티커와 불법 촬영물 경고 홍보물을 부착해 불법 촬영에 대한 도민, 관광객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체감 안전도를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할 방침이다.

고장경 자치경찰단장은 “향후에는 여성들의 방문 빈도가 높은 업소를 추가로 발굴해 점검 활동을 확대하는 등 보다 안심할 수 있는 제주 관광 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고대리기자



도내 수상레저업체가 19일 제주 일본영사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핵오염수 해양 방류 결정을 취소하라고 촉구하고 있다. 강희만기자

## “핵오염수 방류는 인류에 대한 테러”

### 시민단체·수상레저업계 日정부 해양방류 결정 규탄

일본 정부가 지난 13일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를 결정한 것과 관련 제주사회의 반발과 규탄이 이어지고 있다.

12개 시민사회단체와 정당으로 구성된 탈핵·기후위기저지추진단은 19일 오전 11시 제주시 노형동 제주주일

본국총영사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후쿠시마 핵오염수 바다방류는 인류에 대한 테러”라며 “일본 정부는 핵오염수 바다 방류 결정을 즉각 철회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탈핵·기후위기저지추진단은 기자회견 후 항의서한을 전달하기 위해 제주일본국총영사관을 방문했지만 총영사관은 문을 굳게 걸어 잠근채

입증할 과학적인 근거와 검증 방법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일본 정부는 인류 공통 자산인 바다를 자신들의 이익만을 고려해 방사성 물질로 오염시킬 수 없다”며 “일본 정부는 즉각 핵오염수 바다 방류 결정을 즉각 철회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탈핵·기후위기저지추진단은 기자회견 후 항의서한을 전달하기 위해 제주일본국총영사관을 방문했지만 총영사관은 문을 굳게 걸어 잠근채

## 비행 두 딸 강한 처벌 아버지 지법 “훈육 범위 넘어” 벌금형

자녀들의 비행으로 화가 난 아버지가 강한 처벌을 했다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 김연경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A(48)씨에게 벌금 600만원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미성년자 두 딸을 둔 A씨는 딸들이 집 밖으로 몰래 나가 술을 마시자 수차례에 걸쳐 신체적 학대 행위를 한 혐의 등을 받는다.

김연경 부장판사는 “정상적 훈육의 범위를 넘는 강한 처벌을 가한 죄가 가볍지 않다”고 밝혔다. 강민성기자

## 제주 올해 첫 SFTS 환자 발생

### 도 “야외활동시 주의해야”

제주에서 올해 첫 SFTS(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환자가 발생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제주시에서 거주하는 50대 여성 A씨가 19일 오후 2시40분쯤 제주보건환경연구원으로부터 SFTS 확진 판정을 받았다고 이날 밝혔다.

A씨는 증상이 나타나기 2주 전 고사리 채취 작업 후 발목 부위에 진드기에 물린 교상을 발견하고 떼어냈다. 이후 지난 14일부터 발열, 설사, 구토 증상으로 병원 응급실에서

SFTS 검사를 실시한 결과, 19일 확진 판정을 받았다.

제주도는 도내에서 올해 첫 SFTS 환자가 발생함에 따라 야외활동 시 긴 옷 착용 및 외출 후에는 목욕 후 옷 갈아입기 등의 예방수칙을 준수해 줄 것을 당부했다.

제주도는 SFTS 등 진드기매개 감염병 예방을 위해 보건소 및 의료기관을 통한 환자 감시체계를 운영하고 있으며, 보건소를 통한 지역주민 대상 진드기 매개 감염병 예방 교육 및 홍보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고대리기자

허가번호 제주 18-2017-2002호

# 2022년 2월달 식재용 탱자묘 1년생 사전분양계약 한림종묘

010-3690-2453

## 감귤 신품종 분양

### 2021년 봄 출하예정 묘목 분양

**만감류** 레드향(무럭), 천혜향, 황금향, 윈터프린스, 제라몬(레몬), 미니향, 한라봉, 탐나는봉, 사라향, 아마니스

**조생** 유라조생, 하레조생, 궁천 (2년생 이상 100% 이삭만 묘목임)

**농장위치** 서귀포시 안덕면 서광리 850-6번지 (평화로 서광주유소에서 모슬포 방향 300M 위치)

종자업등록번호 : 18-2003-20-09

# 자원종묘

010-2691-1883

## 국내개발 우수한 [신품종] 감귤묘목 분양

농가 소득에 큰 도움이 될 품질이 우수한 국산 품종

**히트매김** 윈터프린스 - 연내수확이 가능한 만감류 과일시절의 새로운 강자! 21년 11월 / 22년 3월(분양예약) - 가온시 10월~11월 수확가능 황금향대조품종(품질이 쉽게 벗겨진다.) - (FTA)기금 우량 품종 경선사업 (감귤원 원지 경비사업)보조품종

**히트매김** 미니향 - 작은 감귤이 맛있다! 고당도 소과형 감귤!  
하레조생 - 당도는 높고 산함량은 낮은 고품질 과실품종.  
대조품종 - 제라몬(레몬), 탐나는봉(한라봉), 사라향(천혜향)

**과수농가 보급품종** 13년생 레드향, 한라봉, 천혜향, 황금향, 유라조생, 궁천, 흥진, 카리향, 신화홍(붉은색 감귤)

**가정원예(조경수)** 2-7년생 하균, 팔삭, 세미봉, 금굴, 당유자, 아마니스, 미니몬, 국내산 탱자묘목 판매 (신고번호 03-0182-2020-3)

제주한라농원은 종자업등록 국립종자원 품종신고 농촌진흥청 통상실시 계약자로 생산, 증식하여 공식판매하는 종묘업체입니다.

**제주한라농원**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상선읍 서성일로 991번길 1  
종자업등록번호 제18-2017-20-02호  
010-6500-2329

## 모든품종 감귤(묘)분양

종자업등록번호 제18-2002-20-07호

# 유라 (1~5년생)

- 황금향 • 레드향
- 천혜향 • 하레조생
- 미니향 • 레몬
- 탐라향 5년생(화분)
- 궁천 • 일남일호

※ 신품종 다수보유

# 서귀종묘

064-733-7005, 010-6677-5753